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2.01~26.02.28)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2/3]

- 2026년 2월 3일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지정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근거한 감독 명령을 내림. 또한 2026년 2월 2일부로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장 및 츠부지방정비국장이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건축기준적합 판정자격자(확인검사원)에 건축기준법 제77조의63 제2항에 근거한 업무 금지 처분을 내림
- 2026년 2월 4일 주식회사 J건축검사센터(지정번호 제28호)가 건축 확인 검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감독명령과 담당 검사원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사이타마현 내 소재한 1건의 건축물 확인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음. 조사 결과, J건축검사센터 소속 확인검사원들은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채 '확인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가 된 부분은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인 '강재(철강재)의 접합 방식'임. 현행 건축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탄소강 강재를 접합할 때는 고력 볼트 접합, 용접, 리벳 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 방식만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통과했음. 기관 처분과 별개로, 실제 검사를 담당했던 확인검사원 안자이 가츠미 씨(등록번호 제3002283호), 야자키 세이이치 씨(등록번호 제3000920호)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정비국(칸토지방정비국) 차원의 징계(업무금지 1개월)가 내려졌음
- 건축물 확인 검사 과정에서 필수 소방 설비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식회사 니시니혼(西日本) 주택평가센터(지정번호 제7호)'에 대해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미에현 내 소재한 특정 건축물의 확인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음.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소방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설비가 설계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음. 검사 실무를 담당한 확인검사원 마츠모토 켄타로(등록번호 제5000836호)에 대해서도 츠부지방정비국 차원의 징계(업무금지 10일)가 내려졌음
- 일본의 대표적 지정확인검사기관인 '일본 ERI 주식회사(지정번호 제5호)'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건소 통보 절차를 대규모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감독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건축기준법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정확인검사기관은 '특정건축물'(백화점, 오피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 확보를 위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47건의 건축 확인 건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인 보건소 통보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음. 일본 ERI 주식회사는 대규모 행정 누락이 발생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실시 매뉴얼 및 체제 정비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2026년 2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사내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밀착 감시' 처분을 받게 됨

※ 지정확인검사기관 : 법령에 따라 확인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토교통성장관(업무수행 구역) 하나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관할 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비국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업무수행구역이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인 경우)가 지정한 자

□ 해외부동산업 관민 네트워크(J-NORE)에서 2025년도 총회 참가자 모집 [2/4]

- 일본 국토교통성이 해외 부동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 부동산 업계 관민 네트워크(J-NORE)'의 창설 5주년을 맞아 2월 26일 2025년도 총회를 개최하며 참가자 모집에 나섬
- 이번 행사는 일본 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복잡한 법 규제와 비즈니스 관습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구축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음
-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0년 해외 부동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출범 시켰으며, 그동안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옴. 특히 이번 총회는 설립 5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점에 열리는 만큼 지난 활동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핵심은 국토교통성의 최신 해외 부동산 관련 시책 설명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동남아시아 및 북미 등 주요 지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강연으로 구성됨. 또한 실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현지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임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교통성 담당관이 직접 등단하여 '해외 부동산 비즈니스를 둘러싼 최근 시책'을 주제로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지원 제도 활용법을 상세히 설명함. 이어지는 특별 강연에서는 해외 진출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세무 및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 자문기관인 EY 세무법인(EY Tax Co.)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해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국제 세무 및 지배구조 구축 방안을 제언함. 특히 현지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 등 실질적인 조세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임.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실제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노무라 부동산(Nomura Real Estate Development) 등 주요 회원사의 실무 책임자가 발표자로 참여함

□ 도로에서 신기술 도입 촉진을 지원하는 제3자기관 등을 공모 [2/5]

-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로 분야의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 전문기관 공모에 전격 착수했음
- 이번 조치는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을 촉진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음.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매년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각화하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17회 도로기술간담회에서 2026년도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안이 제시된 것이 이번 공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해당 간담회는 토호쿠대학 대학원의 히사다 마코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음
- 이번 공모의 핵심은 도로국과 협력하여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검토하고 실증 실험을 수행할 제3자 기관인 '도입 촉진 기관'을 선정하는 것임. 공모 기간은 2026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어 역량 있는 전문 기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음
- 공모 분야는 2026년도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안 중 엄선된 총 7가지 테마를 대상으로 설정되었음. ① 토공 작업의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는 기술, ② 스택 차량을 방지하는 제설 기술, ③ 교량 점검 지원 기술, ④ 터널 점검 지원 기술, ⑤ 광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아스팔트 포장 기술, ⑥ 초중량 교통에 대응하는 장수명 포장 기술, ⑦ 토공 구조물 점검 및 방재 점검 효율화 기술에 대해 공모를 받음
- 도입촉진 제3자 기관은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에 배치된 기술 주제 중 담당 기술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검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수행하고, 심의를

통해 자문을 받아 아래 절차에 따라 도로에서의 직할 공사 등에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함. 도입 촉진 제3자 기관은 ① 기술테마의 요구 성능 및 성능 확인 방법 작성, ② 기술공모요령 제정 및 기술 공모 시행, ③ 의견 교환, ④ 제출된 기술 확인(기술 실증)을 담당함

□ 제5회 드론 서밋을 후쿠시마현에서 개최 [2/5]

- 일본 국토교통성이 경제산업성 및 후쿠시마현과 협력하여 오는 11월 '제5회 드론 서밋'을 전격 개최하기로 결정했음. 이번 행사는 드론의 사회적 실현을 가속화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배경에서 기획되었음
- 일본은 지난 2022년 유인 지역 내 비가시권 비행인 '레벨 4' 비행을 허용한 이후 드론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해왔음. 2023년에는 레벨 3.5 비행 제도를 신설하고 2025년에는 다수 기체 동시 운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규제 완화와 기술 표준화를 병행하고 있음
- 드론 서밋은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물류, 방재, 인프라 점검, 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드론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개최지로 선정된 후쿠시마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통해 로봇과 드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났음. 특히 2024년 '신기술 구현 연계 유대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민관 협력의 강력한 기반을 갖춘 점이 개최지 선정의 핵심 디테일임
- 후쿠시마현은 2025년까지 특정 구역 내 레벨 4 비행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드론 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행사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빅 팔레트 후쿠시마'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임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론 활용에 앞장서는 지자체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및 패널 토론이 마련되어 있음. 현장에서는 최신 드론 기체들의 데모 비행이 펼쳐지며 관련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도 함께 진행됨

□ 민간건축물 뽀칠석면 등 비산방지대책에 관한 조사(2024년도) 결과 [2/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일 민간건축물의 석면 비산 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담은 '2024년도 조사 결과'를 발표함. 정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건축물 방재주간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운영되며 이번 춘계 캠페인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조사는 화재와 지진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60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방재주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건축물 내 뽀칠 석면 등에 대한 비산 방지 대책 대응률은 전년 대비 0.6% 상승한 96.8%를 기록함
- 국토교통성은 미 실시 건축물에 대해 조속히 제거 및 봉쇄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은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적인 방재 대책으로 꼽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임
- 행사 기간 중에는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재 지식을 보급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전개됨. 특히 노후화된 민간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보조금 제도 창설 현황도 함께 공유함

□ **스몰 컨세션 형성 추진사업의 모집 개시 [2/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일 유휴 공적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스몰 컨세션(Small Concession) 형성 추진사업'을 공모하고 지자체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함.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여 지방 창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스몰 컨세션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최근 일본 내에서 주목받는 정책임. 국토교통성은 지자체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구상 책정 및 각종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할 방침임. 모집 대상은 일본 전역의 지방 공공 단체이며 공모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6일 17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됨
-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요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됨
- 국토교통성은 접수된 응모 건 중 전문가 파견이 시급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파견될 전문가 그룹 또한 추후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임. 이번 정책은 방치된 공공 자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술자를 장관 표창 [2/9]**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9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일본 기업 기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5년도 국토교통대신 표창' 대상자를 발표함. 본 제도는 기술자들이 국내외 시장을 넘나들며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해외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적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국내 공공사업 입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올해는 총 9개사에서 1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의 우수 기술자가 선정됨. 특히 기술력과 공로가 탁월한 3명에게는 '국토교통대신상'이,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인재 3명에게는 '국토교통대신 장려상'이 수여됨. 해당 표창은 국내 우수공사 표창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가점함
- 심사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소속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 이번 표창은 일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 시상식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도쿄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 **제8회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 국토교통대신상을 수여 [2/10]**

-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제8회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적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국토교통대신상을 수여함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은 내각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담당 분야별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가장 뛰어난 사례에는 내각총리대신상을 시상함. 국토교통성은 과학기술 진흥의 관점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하여 매년 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시상식은 산학연계와 기업 간 협업 등 조직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됨
- 영예의 국토교통대신상은 '공동 수송 데이터베이스 보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한 일반사단법인 운송디지털비즈니스협의회 팀에게 돌아감. 해당 프로젝트는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리적 인터넷(Physical Internet)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여 물류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함. 특히 흩어져 있는 수송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 배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공략한 점이 높게 평가됨. 수상 팀은 데이터 기반의 협력 모델을 통해 개별 기업 단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물류 최적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분석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물류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 미나토 녹지 PPP 가이드라인을 수립 [2/12]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2일 민관 협력을 통한 항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나토 녹지 PPP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립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도입된 '미나토 녹지 PPP' 제도를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제작됨
- 해당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항만 녹지에 카페나 식당 등 수익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녹지 정비 및 유지 관리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행정 재산을 장기 임대해주는 것이 핵심임. 국토교통성은 항만관리자와 기업들이 제도 활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어 사전과 상세 절차, 유의 사항 및 지원 제도 등을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담음
- 특히 대학교수와 법률 전문가 등 전문가가 참여한 워킹그룹(WG) 운영을 통해 관과 민의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방식과 적정 임대료 산정 기준을 논의함.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는 공공 기여방안과 사업자 공모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배려함
-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노후화된 항만 녹지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민간사업자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투영된 다양한 시설 도입을 유도함. 정부는 향후 축적되는 실제 운영 사례와 새로운 지견을 수집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적화해 나갈 방침임

□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향한 핸드온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 [2/1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8일,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 제도 개선을 돕기 위한 '2026년도 핸드온(Hands-on) 지원 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시마네현을 최종 선정함
- 이번 사업은 대규모 재해 복구 및 부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 불성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 발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됨.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입찰 행정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함
- 국토교통성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현을 결정함. 선정된 시마네현은 향후 국토교통성이 별도로 선정한 전문 지원 사업자와 협력하여 관내 시·구·정·촌의 입찰 계약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발생하는 공사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둠.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자재비 상승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적산 기준 마련 및 발주 방식의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다뤄짐
- 국토교통성은 본 사업을 통해 축적된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일본 전역의 공공 공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임. 부동산·건설경제국은 선정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 업체들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계기가 됨. 나아가 재해에 강한 국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2026년 3월부터 적용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에 대해 [2/17]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7일,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를 결정하여 발표함. 설계노무단가는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 가격으로 널리 활용됨. 다만 해당 단가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제경비 등 간접비 성격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이번 단가는 2025년도에 실시한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직종 평균이 전년 대비 4.5% 인상됨. 이로써 법정 복리비 등을 반영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됨.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가중 평균치가 25,834엔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5,000엔을 돌파함
- 특수작업원(28,111엔, +4.3%), 보통작업원(23,605엔, +3.0%), 경작업원(18,605엔, +2.9%), 비계공(30,780엔, +4.0%), 철근공(31,267엔, +4.6%), 운전원(특수)(29,442엔, +4.8%), 운전원(일반)(25,275엔, +2.9%), 거푸집공(31,671엔, +5.0%), 목공(30,331엔, +3.1%), 미장공(30,508엔, +4.1%), 교통유도경비원A(18,911엔, +5.8%), 교통유도경비원B(16,749엔, +6.7%)의 주요 12 직종의 평균치는 24,095엔으로 2025년 3월 대비 4.2% 증가함
- 이는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정부는 적정한 임금 지급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현장의 임금 인상 흐름을 가속화하고자 함
- 국토교통성은 이번 단가 인상분이 실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병행할 방침임